

안녕하세요? 저는 니시오카 유메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고 그 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끌리고 매력이 넘치는 훌륭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어서, 한국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두 명의 친구들과 3박 4일로 서울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찾은 한국은 처음 보는 것들, 먹을 것들이 많아서 너무 신선했고 계속 설렸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경복궁이나 서울타워를 봤을 때는 매우 기분이 고조되었고,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방탄소년단의 박지민님이 자주 먹는 만두를 명동의 포장마차에서 매일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나흘을 보내고 난 후, 저희는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돌아가는 비행기가 인천공항 제 2 터미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제 2 터미널로 갔지만 저희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저희가 탈 비행기는 제 1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제 1 터미널로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 비행기를 놓쳐 못 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8 시였습니다. 다음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이라 들어서 저희는 공항에서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오기 전까지는 정말 즐거웠지만 저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공항의 안내소 직원분에게 어떻게든 한국어로 사연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분은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려 해 주시고 울먹이는 저희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고 불안해 하고 있으니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여러 번 되풀이해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했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분 덕분에 저희는 다음날 아침 4 시에 탑승권을 구입해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괴로웠던 일이 그 분 덕분에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된 좋은 추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한국에 저는 점점 매료되었고 지금보다 훨씬 한국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종식은 예상할 수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원상태로 되돌아 와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